地理學論叢 제43호 (2004. 3)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 특성과 그 변화에 관한 연구
-상해진출 한국기업을 사례로-

김 지 연*

The characteristics and changes of Korean firm's FDI in China: The case of Shanghai

Kim, Ji-Youn

요약 : 본 논문의 목적은 최근 중국 내 투자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기업의 대중국 해외직접투자 특성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원자료를 구득하여 한국기업의 대중투자패턴의 연도별, 업종별, 투자지분율별, 지역별 변화를 분석하여 투자동기와 입지결정요인과의 관계를 살피고, 상해진출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입지특성과 현지화 정도를 분석하였다. 최근 한국기업의 중국진출이 증가하고 있지만 철수하는 기업의 수도 증가하고 있어 여러 연구들에서 현지화가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5가지의 기준을 종합하여 현지화 정도를 분석하였으며, 특히 현지화가 기업간 협력관계를 통한 국제적 네트워크에 의해서도 강화될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앞으로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입지패턴은 투자동기 및 진출업종의 변화와 그에 따른 입지결정요인의 변화에 따라 계속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국의 부품국산화 시책 등으로 인해 2차, 3차 협력업체들의 중국진출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 국내 산업의 공동화가 우려되고 있다. 이러한 때에 해외투자기업이 투자대상국 현지에서 성공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기업간의 국제적 네트워크를 통해 우리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주요어 : 해외직접투자, 입지결정요인, 현지화, 기업간 협력네트워크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how the characteristics of Korea's FDI in China is being changed and draw out more desirable development patterns in the future. Therefore, this study investigates the relationships between motivation of Korea's FDI in China and its geographical changes. To analyze locational characteristics and localization degrees in detail, questionnaire and interview surveys were conducted for 300 Korean firms in Shanghai.

According to analysis method and standard, the results of study can be varied. Therefore, judging the degree of localization with only one or two criteria requires careful approach. It should be realized that global network through cooperation among companies could help expedite localization.

* 서울대학교 대학원 지리학과 석사과정 졸업

This work contributes to the understanding of the characteristics and changes of the Korea's FDI in China and localization degree through the survey and analysis of inter-firms cooperation relations.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is study, locational patterns of Korean firms in China keep changing by FDI motives and types of business while the

With a view to help Korean firms have a positive effects on Korean economy through successful embeddedness in China, the change of awareness about localization should be necessary.

Key words: Foreign Direct Investment, Determinants, Localization, Cooperate Network

1. 서론

1) 연구배경과 목적

최근 중국 내 투자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기업의 대중투자에 대한 기대 못지 않게 국내 산업공동화에 대한 우려가 함께 나타나고 있고 중국에서 성공적으로 뿌리내리지 못하고 철수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어 대중투자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국내 산업의 공동화에 대한 대책마련도 시급하지만 중국에 진출한 기업이 성공적으로 현지에 뿌리내리는 것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철수하는 기업의 증가는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 될 것이며 해외직접투자를 통한 우리 경제의 세계화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때에 우리 나라 기업의 대중국 투자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발전 방향을 모색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급변하고 있는 대중국 투자 환경에서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의 특성과 그 변화를 투자패턴의 변화를 통해 살펴보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 및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세부적인 연구주제와 연구방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투자동기와 입지결정요인과의 관계이다. 투자패턴의 지리적 변화는 우선 대중투자동기의 변화에 따라 이용하고자 하는 입지특유의 우위요소가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어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고 생각되어 이를 밝혀 보고자 한다. 이는 한국의 대중투자가 아직도 기업특유의 우위요소보다는 입지특유의 우위요소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먼저 우리나라 기업의 대중투자패턴을 연도별, 업종별, 투자지분율별로 살펴본 후, 투자동기의 변화와 관련이 될 수 있는 업종별 · 지역별 투자패턴의 시공간적인 변화를 분석하여 지리적 투자패턴의 변화가 한국기업의 대중투자의 특성 변화와 입지결정요인의 변화와 관련성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는 대중투자기업의 현지화에 관한 것이다. 만약에 지리적 투자패턴의 변화가 투자동기의 변화 등 한국기업의 대중투자의 특성변화와 관련이 있다면 그러한 변화가 투자기업의 지역 내 활동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었다. 현지법인과 모기업, 또는 현지법인과 지역 내 다른 기업과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현지사회의 일원으로 뿌리내리기 위해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등을 현지화라는 주제 아래 5가지의 기준(생산활동의 현지화와 기업간 연계, 연구개발활동의 현지화, 조직과 고용의 현지화, 현지사회에의 융화노력, 지방정

부와의 관계)을 정해 살펴봄으로써 지역 내에서 투자기업의 특성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 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종합하여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의 특성을 파악하고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예측해봄으로써 대중국 투자의 발전적인 방향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대상과 방법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투자패턴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한 기본자료는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1988년부터 2002년 9월까지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중국전체투자현황에 관한 원자료를 구득하여 활용하였다. 이를 토대로 전체적인 대중국 투자패턴의 변화를 연도별, 업종별, 투자지분율별로 분석하고 지리적 패턴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최근의 대중국 투자의 변화 중 서비스업의 증가가 주요 현상의 하나임(박삼옥, 1999)을 감안하여 업종별 분석은 크게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하였다. 분석대상지역은 중국전체를 기본대상으로 하되 투자동기와 입지선정의 특성과 변화, 그리고 현지화의 정도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상해시를 사례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상해시를 선정한 이유는 최근 상해로의 투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김종근, 1998; 백권호 외,2002)과 상해시가 중국경제발전의 핵심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선진 다국적기업들의 진출이 활발한 곳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해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의 특성과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대중국 투자의 변화와 발전방향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이를 위해 상해에 진출해 있는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모기업을 대상으로 한 1차 설문에서는 모두 48부가 회수되었는데 이 중에서 44부(14.7%)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1차 설문에 답변을 준 기업의 상해 현지법인을 대상으로 2차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모두 32부(10.6%)가 회수되어 분석되었다. 설문조사의 내용을 보완하고 업종에 따른 투자특성의 변화와 앞으로 대중국 투자의 발전방향에 대한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8월 3일부터 7일까지 상해 현지를 직접 답사하였고 3개의 상해현지기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고, 모기업과 현지법인을 합해 10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심층전화인터뷰를 실시하였다.

2.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 결정요인과 투자패턴의 지리적 변화

1) 대중국 해외직접투자 결정요인

중국이 연평균 30%이상으로 개도국에의 해외직접투자 대부분을 끌어들이면서(Shatz & Venables, 2000), 여러 FDI연구들에서는 왜 중국에 투자하는가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다(Walsh et al, 1999; Cheng & Kwan, 2000; Shi, 2001). 거의 모든 연구에서 1970년대 말 시작된 중국 정부의 대외개방정책(open-door policy)[1]을 대 중국해외직접투자의 주요 결정요인의 하나로 강조하고 있으며 그 밖에 중국의 입지 우위적 요소들(저렴하고 풍부한 노동력, 낮은

1) 최홍석 · 안종석(1999)의 중국정부의 투자유인책에 대한 제도 변천에 관한 연구 참조

임대료, 시장의 크기 등)을 들어 대중국 투자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들에서는 중국으로의 해외직접투자의 시공간적 변동에 초점을 두고 왜 지역적으로 FDI가 불균등하게 나타나는 지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Sun et al(2002)은 중국 내 30개 성(省)의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을 대상으로 1986년부터 1998년까지 시공간적인 FDI 입지결정요인의 분석을 통해 지역적 불균등 현상을 외국투자기업이 이용하고자 하는 부존자원의 지역적 차이와 정부정책의 변화 등을 들어 설명하고 있다. 최근 중국정부의 중서부지역 개발정책과 각 지방정부들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노력으로 1989년 이후부터 중서부지역으로 투자가 서서히 증가하여 대중국 FDI가 지리적으로 분산화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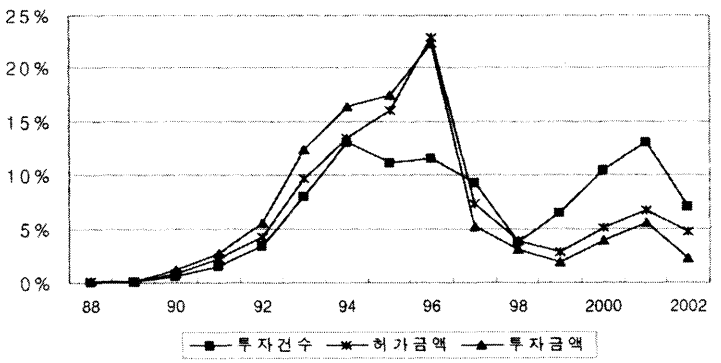
우리 나라 기업의 대중국 투자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들에서도 기업특유의 우위요소 보다는 입지특유의 우위요소가 강조되고 있다. 이는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경우 선진국의 다국적기업과 비교하여 소규모이며 노동집약적이고 표준화된 기술을 가지고 있어 투자지역의 중국기업과 선진국의 다국적기업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입지우위적 요소(저임의 노동력 등)를 이용하게 된다는 것이다(Yeung,1994; Han, 2002). 이러한 입지특유의 우위요소가 한국의 대중국투자의 결정요인으로 작용한다면 지역적으로 서로 다른 투자특성을 보일 것이며, 역으로 지역적 투자패턴의 변화를 분석해 보면 한국기업의 대중투자의 결정요인은 무엇인지 또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2) 대중국 투자패턴의 연도별 · 업종별 · 투자지분율별 변화

한국의 대중국 직접투자의 연도별 변화를 투자건수, 허가금액,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그림-1〉과 같다. 90년대 들어 본격화된 대중국 투자는 특히 1994년부터 1996년까지 금액면에서 급격한 증가를 보여 건수 당 투자규모가 컸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1997년에 들어서 국내경기침체의 장기화와 금리불안, 동남아시아 외환위기, 해외차입여건의 악화 등으로 한국의 대중투자는 급격히 위축되었으며 이러한 현상은 1998년에 더욱 심화되었다(김종근,1998; 박삼옥,1999).

국내경제가 서서히 회복되는 시기와 때를 같이

〈그림-1〉 연도별 중국투자 변화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데이타베이스

〈표-1〉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시기별 투자변화 (단위:%)

	1988-1991	1992-1996	1997-2002.9
제조업	89.6* (90.9)	86.9 (79.8)	85.8 (83.5)
서비스업	5.7 (1.5)	10.5 (19.2)	12.3 (14.8)

주 : * 은 투자건수, ( )은 허가금액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데이타베이스

하여 대중국 투자도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였는데 투자건수의 증가가 허가금액이나 투자금액의 증가보다 가파른 증가를 보여 외환위기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01년 투자건수는 외환위기 이전인 1994년과 같은 수준으로 회복되었으나 금액 면에서는 아직도 회복세가 저조하여 아직까지 건수 당 투자규모가 소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대중국 투자의 업종별 구성을 보면 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여 2002년 상반기까지 중국진출 투자건수 중 86.2%로 단연 높다. 이는 국내 임금상승으로 인한 수출경쟁력의 약화로 중국의 값싼 노동력과 토지를 활용하기 위해 중국을 생산거점기지 및 선진국 우회수출기지로 한 투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다(Kumar & Kim,1984; Han & Brewer,1987; 김종근,1998). 중국에 진출한 제조업의 업종별 분포를 보면, 가구 및 기타제조업과 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신발제조업 등 노동집약적인 산업의 비중이 높고 한국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조립금속, 기계 및 장비, 사무, 계산, 회계용 기기, 전기전자, 음향, 영상, 통신장비 등의 비중은 낮아 한국의 대중투자가 중국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라기보다는 한국기업의 구조재편 과정에서 중국의 값싼 노동력과 토지를 이용하기 위한 비용절감전략의 일환임을 알 수 있다(박삼옥,1999).

그러나 최근의 업종별 변화를 살펴보면 아직까지도 제조업의 비중이 높지만 서서히 감소를 보이는 반면 서비스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서비스업은 1988-91년에 투자건수 5.7%에서 1992-96년에는 10.5%로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에 제조업은 89.6%에서 86.9%로 2.7% 감소하였다. 1997-2002년에도 제조업은 1.1% 감소한 반면 서비스업은 1.8%포인트 증가하였다. 서비스업의 경우 최근 투자건수에서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 중국의 WTO가입으로 인한 서비스시장의 개방과 맞물려 중요한 변화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투자지분율을 보면 100%단독투자가 투자건수 기준 57.9%로 합작투자(42.1%)보다 15.8% 높게 나타난다. 허가금액 기준으로도 단독투자는 53.6%로 합작투자보다 높다. 단독투자의 연도별 변화를 살펴보면, 투자건수 기준으로 중국진출 초기에는 단독투자의 비율이 낮았으나 1994년부터 꾸준히 증가하여 2000년에는 70.5%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패턴의 변화는 기업의 기술수준과 투자동기에 따라 기업이 단독이나 합작을 선택하는 기준이 달라진다는 서로 상반된 견해들이 제시되기도 하지만(Walsh,1999; Han,2002), 중국정부의 정책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것이라는 견해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Sun et al, 2002). 중국의 대외개방정책 초기인 1979년부터 1980년대 초까지 중국에 진출하는 기업은 단독투자가 허용되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1986년 중국정부가 외국인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단독투자의 권리를 공식적으로 허용하여 외국투자기업의 독자적인 운영의 자유를 인정하

게 된 것이다. 그러나 대중국 투자초기에 합작투자의 비율이 높은 것은 중국정부의 정책 때문만은 아니며, 개방초기 중국의 시장환경에 익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장벽을 극복하고 지역적 네트워크에 접근하고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역 파트너는 중요하고 때론 필수적이었다는 견해도 있다(Shi,2001).

3) 대중국 투자패턴의 지리적 변화

(1) 투자대상국 내 지역별 투자분포의 변화

〈표-2〉의 한국기업의 대중투자의 지리적 분포를 보면, 투자건수를 기준으로 발해만지역(49.6%)과 동북지역(32.3%), 그리고 화중지역(12.2%)으로 투자가 집중되어 중국 전체 투자의 94.1%를 차지하고, 허가금액 기준으로는 발해만지역이 47.9%로 역시 가장 높고 화중지역이 23.1%, 동북지역이 18.2%로 중국 전체 투자의 89.2%를 차지하고 있다.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발해만 지역이 중국전체 투자의 5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화중지역이 24.3%, 동북지역이 15.9%로 지역간 차이는 더 커진다. 투자건수와 금액 기준 모두에서 발해만지역이 대중투자 집중지역으로 단연 우세하게 나타났으며, 동북지역과 화중지역은 건수와 금액면에서 서로 다른 패턴을 보여 투자건수로는 동북지역이 우세하나 금액기준으로는 화중지역으로의 투자가 우세하게 나타난다. 이는 동북지역의 투자가 주로 노동집약적인 산업부문의 진출이 우세하여 건수 당 투자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표-2〉 한국기업의 중국내 지역별 투자현황(2002.9)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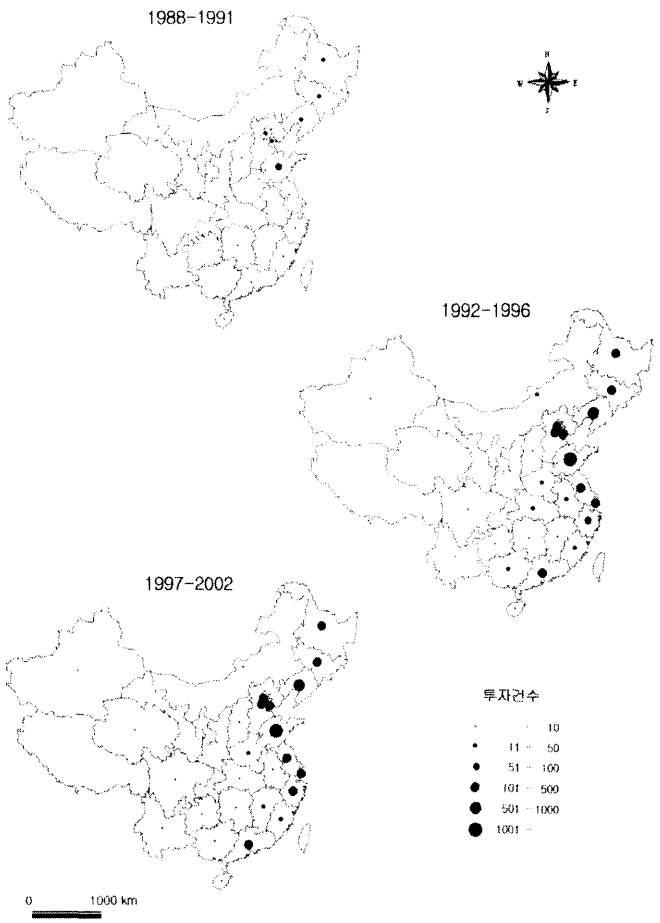
		①투자건수	②허가금액	③투자금액	③/②*
발해만	산동성	32.3	27.3	27.9	61.5
	하북성	2.5	1.4	1.3	58.1
	북경시	5.9	7.3	7.6	63.0
	천진시	8.9	11.9	13.4	67.6
지역 합계		**49.6**	**47.9**	**50.2**	**63.1**
동북	요녕성	18.6	11.5	10.2	53.3
	길림성	9.8	3.8	3.1	49.4
	흑룡강성	4.2	2.9	2.6	53.6
지역 합계		**32.3**	**18.2**	**15.9**	**52.6**
화중	상해시	4.1	7.7	8.8	69.2
	강소성	5.7	11.3	11.8	63.1
	절강성	2.4	4.1	3.7	54.2
지역 합계		**12.2**	**23.1**	**24.3**	**63.5**

주 : * 은 허가금액 대비 투자금액의 비율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데이타베이스

상해를 포함한 화중지역은 1990년대 중반부터 대기업위주의 대규모 투자가 본격화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김종근,19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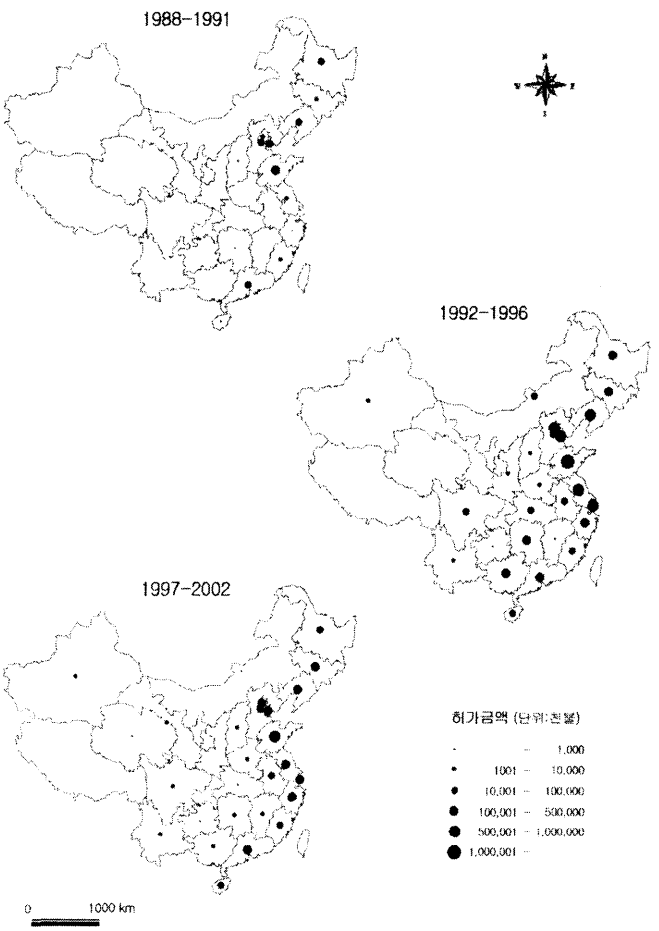
지역별 투자패턴의 변화를 투자건수와 허가금액을 기준으로 시기별로 살펴보면 〈그림-2〉, 〈그림-3〉과 같다. 중국진출 초기(1988-1991)에는 산동성을 중심으로 동북연안지역으로 투자가 이루어지던 것이 대중투자가 본격화되던 시기(1992-1996)에는 화중지역을 중심으로 투자가 확대되면서 지리적으로 분산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해를 중심으로 한 화중지역은 연해안 및 내륙 진출기지로 선적의 수송이 용이하며, 내륙으로의 수송망도 발달한 지역이다. 또한 북경이 중국의 정치 중심지라면 상해는 중국의 경제중심지로서 소비수준도 높고 수출지향형 투자 및 내수지향형 투자 둘 다 용이하여 향후 중국투자의 중심지로 될



〈그림-2〉 시기별 · 지역별 투자패턴의 변화(투자건수 기준)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데이타베이스



〈그림-3〉 시기별 · 지역별 투자패턴의 변화(허가금액 기준)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데이타베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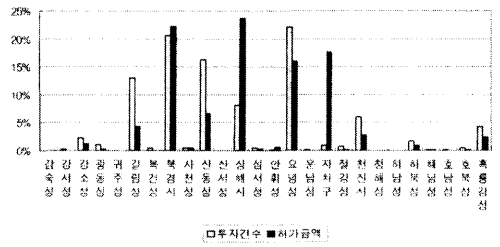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거론되어 왔다(김종근, 1998). 외환위기 이후(1997-2002) 대중투자는 건수보다는 금액 면에서 전체적으로 감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업종별 투자패턴의 지리적 특성

업종별 투자분포를 지역적으로 살펴보면, 제조업의 경우 산동성이 34.4%로 가장 많았고 요녕성은 17.9%로 발해만지역과 동북지역에 집중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투자건수와 금액을 기준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그림 -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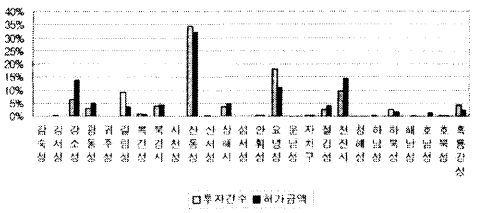
반면에 서비스업은 투자건수와 금액을 기준으로 지역적으로 차이를 보이는데, 즉 투자건수 기준으로는 북경시와 요녕성, 산동성, 길림성 등 발해만 지역과 동북지역이 높게 나타나지만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상해시가 단연 높다. 특히 건수

〈그림-4〉 제조업의 지역별 투자분포(2002.9)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데이타베이스

〈그림-5〉 서비스업의 지역별 투자분포(2002.9)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데이타베이스

에 비해 투자금액의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 상해시의 서비스업 투자의 건당 투자규모가 큼을 알 수 있다〈그림-5〉.

먼저 제조업의 지역별 투자패턴의 변화를 시기별로 보면, 중국진출 초기(1988-1991년)에 주로 동북연안지역을 중심으로 투자가 이루어졌는데 1992-1996년 이후 중국의 다른 지역으로 투자가 확대되었으며 1997-2002년에는 투자건수에 비해 허가금액에서 전반적인 투자감소를 보였다. 서비스업의 대중투자는 1992년 한중수교이후 서서히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한국기업의 진출이 늘고 있는 화중지역 중에서도 서비스업은 특히 상해로 집중되고 있어 지리적 규모에 비해 투자건수와 금액면에서 역동적인 패턴을 보여 준다.

(3) 모기업의 입지지역과 중국 내 투자지역의 입지특성

해외투자기업이 투자대상국에서 어느 지역에 자회사를 세울 것인지를 결정할 때 거리와 시장의 크기가 중요하게 작용하며, 투자동기와 관련하여 수직적 투자와 수평적 투자에 따라 입지지역 선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Shatz & Venables,2000). 따라서 정보의 부족과 불확실성으로 인해 현지국 기업과의 연계, 본사와의 긴밀한 접촉을 위하여 본국과 가까운 국경지역을 선호하거나 정보와 하부구조 등의 시설이 잘 갖추어진 대도시 등 중심지역을 선호하게 되며(남기범,1987), 생산 지향적인 투자의 경우에는 특히 본사와의 지리적 근접성이 입지지역 선정에 강한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일본의 대아시아 직접투자는 저임의 노동력을 이용한 생산시설의 이전에 따른 수직적 투자가 대부분인데(Kimura, 1998), 이 경우 생산네트워크를 수직적으로 통합하기 위해선 투자모국과의 지리적 근접성이 중요한 입지선정 우선 순위로 고려된다는 것이다(강릉원,1988)[2].

대중투자 모기업의 입지지역을 살펴보면, 수도권 지역이 투자건수와 투자금액 기준으로 각각 67.3%, 77.3%, 동남권이 19.4%와 17.1%, 중부권 4.9%, 2.5%, 서남권이 4.0%, 2.0% 순으로 나타나 대부분 수도권에 입지한 기업들로부터 투자가 주도되었음을 알 수 있다. 모기업의 입지지역에 따라 중국 내 투자지역이 약간 다르게 나타나는데〈표-

2) 주성재(1986), Wei(1995a,b), 박상수(1997), 박삼옥(1998; 1999), Yeung(1998), Sun et al(2002)의 연구 참고.

〈표-3〉 모기업 입지지역별 중국 투자지역 현황(2002. 9) 단위: %

	발해만지역			동북지역			화중지역		
	산동성	북경시	천진시	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	상해시	강소성	절강성
수도권	34.3	6.1	10.7	17.5	7.5	3.5	4.2	4.9	2.5
중부권	22.8	4.0	8.5	24.6	12.9	4.6	2.1	7.3	2.6
동남권	32.5	3.2	7.6	17.7	16.1	5.5	3.2	6.4	1.6
서남권	23.5	6.1	12.1	23.1	13.4	6.7	1.4	4.1	2.7
합계	32.3	5.9	8.9	18.3	9.8	4.2	4.1	5.7	2.4

주 : 강원과 제주는 투자건수가 0.6%와 0.1%로 낮아 여기서는 제외하였음.
자료 : 한국수출인은행 데이터베이스

3〉, 수도권지역의 경우 발해만지역으로의 투자가 51.1%로 동북지역(28.5%)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산동성으로의 투자가 34.3%를 차지하여 중국 내에서도 수도권지역과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곳으로 투자가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남권 지역의 경우도 발해만지역(43.3%)이 동북지역(39.3%)보다 좀 더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중부권에서는 동북지역(42.1%)으로의 진출이 발해만지역(35.3%)보다 더 많았고 서남권 지역에서는 동북지역(43.2%)과 발해만지역(41.7%)으로의 투자가 비슷하게 나타났다. 중국으로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수도권 지역과 동남권지역의 기업들이 발해만지역, 특히 산동성으로 투자가 집중되고 있어 앞의 주장들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러나 최근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화중지역으로 진출한 기업의 모기업 입지지역을 보면, 수도권이 11.6%, 중부권12.0%, 동남권11.2%, 서남권8.2%로 비슷한 분포를 보여 발해만 지역이나 동북지역으로 진출한 기업의 모기업 입지지역의 분포와는 다른 패턴을 보여 준다. 이러한 모기업의 입지지역과 중국 투자지역과의 관계를 종합해 볼 때 한국기업의 중국투자에서 지리적 근접성이 입지선정에 중요하게 작용하였음이 일부 설득력을 얻고 있으나 최근 화중지역으로 투자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모기업의 입지지역에서 뚜렷한 특성이 발견되지 않아 산동성이나 동북지역으로 투자하는 경우보다 지리적 근접성이 덜 고려되었을 것으로 볼 수 있겠다.

3. 상해진출 한국기업의 투자특성과 그 변화

1) 상해진출동기

투자동기가 어떠한가에 따라 해외진출기업의 입지지역 선정에도 영향을 미쳐 생산효율성 추구형의 경우에는 노동력과 임금수준, 공장부지 확보 및 가격, 접근성 및 인프라 수준 등이 주요 입지 결정요인인데 비해 시장추구형의 경우 시장규모와 대도시 근접요인이 주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차미숙,2002).

상해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투자동기를 보면, 상해지역을 새로운 수출시장으로 개척하고 더 나아가 상해의 인접지역과 중국전역의 시장확보를 위

〈표-4〉 투자동기와 투자업종과의 관계 단위 : 업체수, (%)

투자동기		제조업	서비스업	합 계
시장 추구형	상해의 새로운 시장 개척	20(23.0)	5(15.1)	25(20.8)
	중국 전역의 시장 확보를 위한 교두보	16(18.4)	11(33.3)	27(22.5)
	기존 시장점유율 유지	4(4.6)	5(15.1)	9(7.5)
		40(46.0)	**21(6.3.6)**	**61(50.8)**
생산 효율성 추구형	생산비 절감	17(19.5)	1(3.0)	18(15.0)
	수출을 위한 생산기지 확보	11(12.6)	-	11(9.2)
	저렴한 노동력 이용	10(11.5)	-	10(8.3)
		41(43.7)	**1(3.0)**	**39(32.5)**
기타 *		9(7.5)	11(9.2)	20(16.7)
합 계		87(100.0)	33(100.0)	120(100.0)

주 : * 기타에 상해의 우수인력 활용(4), 정부의 유인정책 및 제반혜택(3), 상해진출 외국기업의 기술습득 및 협력(2), 관세 및 무역장벽의 극복(2) 등이 있음.
자료 : 설문조사 결과

한 교두보로 삼고자 하는 것이 1 · 2 · 3순위를 합쳐 가장 높게 나타나 상해진출동기의 대부분이 시장추구형임을 나타낸다. 특히, 시장확보를 위한 전진기지로서 상해를 투자지역으로 정했다는 기업의 응답이 22.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는데(〈표-4〉), 중국경제를 선도하고 있는 상해시의 성장잠재력이 시장추구형의 입지지역 선정에 주요하게 작용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표-4〉의 투자동기와 투자업종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 시장추구형 투자동기가 각각 46.0%, 63.6%로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제조업의 경우에는 생산효율성 추구형의 투자동기도 43.7%로 나타나 서비스업의 3.0%와 확연히 구분되는 특성을 보인다. 이는 아직도 상해의 제조업 투자비율이 높은 만큼 생산비 절감과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하려는 생산효율성 추구형 투자동기가 함께 나타나고 있지만 과도기적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최근 상해지역은 타 지역과 비교하여 빠른 속도로 인건비가 상승하고 있고 노동력 수급에도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앞으로 몇 년 후면 생산비 절감과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하기 위해 상해로 진출하는 제조업의 수는 줄어 들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상해현지법인과의 인터뷰에서도 상해의 투자환경 변화를 예측할 수 있었다. 아직까지는 한국보다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몇 년 내에 노동집약적인 제조부문에서 많은 기업들이 상해를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2) 입지선정의 특성과 변화

상해에 진출한 현지법인의 입지선정 이유를 부지단위로 살펴보면, 지가나 임대료 등 저렴한 입지조건과 주요 거래처와 인접한 지역을 우선 순위로 꼽았고, 1 · 2 · 3순위를 합하면 교통이 편리한 지

〈표-5〉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입지선정 이유 단위: 업체수,(%)

	제조업	서비스업	합계
저렴한 입지 조건	11(21.6)	1(4.3)	12(16.2)
주요 거래처와 인접	8(15.7)	2(8.7)	10(13.5)
편리한 교통	13(25.5)	6(26.1)	19(25.7)
장소 자체의 명성(지역이미지)	5(9.8)	5(21.7)	10(13.5)
투자자가 잘아는지역	4(7.8)	3(13.0)	7(9.4)
관련기업 및 지원업종, 협회 집적지역	4(7.8)	5(21.7)	9(12.2)
도심과의 근접성	6(11.8)	1(4.3)	7(9.4)
합 계	51(100.0)	23(100.0)	74(100.0)

주 : 입지선정 이유 1·2·3순위의 합임.
자료 : 2차 설문조사 결과

역을 입지지역으로 정했다는 응답이 25.7%로 가장 높게 나타난다.

상해 현지법인의 입지지역 선정이유를 제조업종과 서비스업종에 따라 살펴보면(〈표-5〉), 교통이 편리한 지역이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각각 25.5%, 26.1%로 입지선정에 있어 우선 순위로 고려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제조업의 경우 저렴한 입지조건(21.6%)과 주요 거래처와의 인접지역(15.7%)을 주요하게 고려한 반면,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장소 자체의 명성(21.7%)과 관련기업 및 지원업종, 협회 집적지역(21.7%)을 주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나 입지선정에 있어 업종별 특성이 일부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상해 현지법인의 구별 입지분포를 보면 해운이 발달한 황포강과 인접한 구(포동신구, 송강구,청포구,민행구)에 제조업이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포는 진출초기인 1992-1996년에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며 1997-2002년에는 외곽지역에 해당하는 가정구로 분산·집중되는 양상을 보인다(〈그림-6〉, 〈그림-7〉). 서비스업이 집중되어 있는 시중심구(특히 장녕구)와 포동신구는 상해를 대표하는 상징성이 강한 지역이면서 교통이 편리하고 하부구조가 잘 갖추어져 한국 뿐 아니라 선진국의 외국투자기업들이 선호하는 중심지역이라는 점에서 서비스업의 입지선정요인과 가장 잘 부합되는 지역이다. 서비스업의 경우 상해진출 초기보다 최근에 더욱 시중심구와 포동신구로 집중되는 반면, 제조업의 경우에는 진출초기의 집중지역이 최근 주변지역으로 분산되면서 가정구에 집중되고 있다. 가정구가 지리적으로 상해의 시중심구와 강소성 사이에 위치해 있어 강소성의 저렴한 노동력 이용이 용이할 것이고 시중심구와 가까워 여러 가지 이점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입지선정의 특성이 상해진출 한국기업의 투자동기 변화와 아울러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해 현지법인을 대상으로 이전의사를 물었다. 이전희망업체의 이전 선호지역과 이유를 살펴보면 〈표-6〉과 같다. 제조업체의 경우에는 상해를 벗어난 주변 지역으로의 이전을 계획하고 있었으며 장소를 아직 정하지 못한 기업의 경우에도 상해는 벗어나게 될 것이라고 답하였다. 이들 기업의 주요 이전이유는 비용측면이 많았는데 상해의 노동비와 지가의 상승 등이 이전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저임의 노동력 이용에 어려움이 있어 주변지역으로의 이전을 고려하고 있었다.

향후 상해의 입지특성은 계속 변화할 것으로 보이나 조사기업수가 11.3%로 적고 시기적으로도 변

〈표-6〉 이전 선호지역과 이유

	업 종	현재위치	이전 선호 지역	이 유
A사	제조업	송강구	강소성 남통	노동비, 지가상승, 인력수급의 문제
B사	제조업	봉현구	산동성 위해	임금, 기후조건
C사	제조업	민행구	장소 미정	부지협소, 임대료, 교통불편, 정부의 지원
D사	제조업	민행구	절강성	인건비 절감으로 가격경쟁력 구축
E사	제조업		요녕성 심양	합작사의 실적 부진
G사	도소매업	가정구	요녕성 심양	업종변경(건설업)
H사	부동산 및 서비스업	시중심구(장녕구)	같은 지역 내	사무실 확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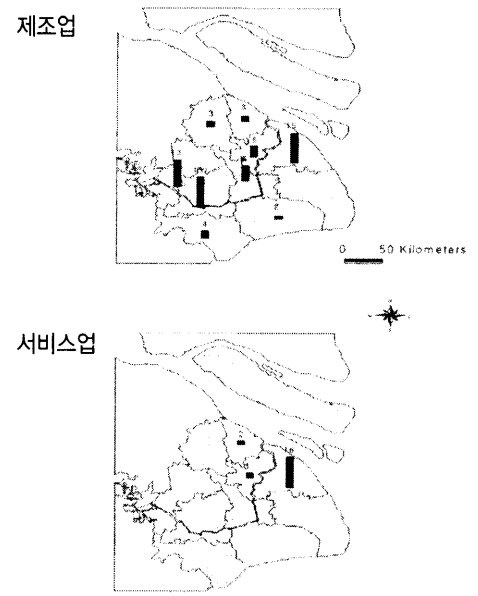
자료 : 인터뷰 및 2차 설문조사 결과

화를 예측하기에는 이른 감이 없지 않다. 앞으로 대중국 투자의 입지지역 변화와 관련하여 제조업의 입지변화에 대한 연구가 보완된다면 좀 더 구체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3) 상해진출 한국기업의 현지화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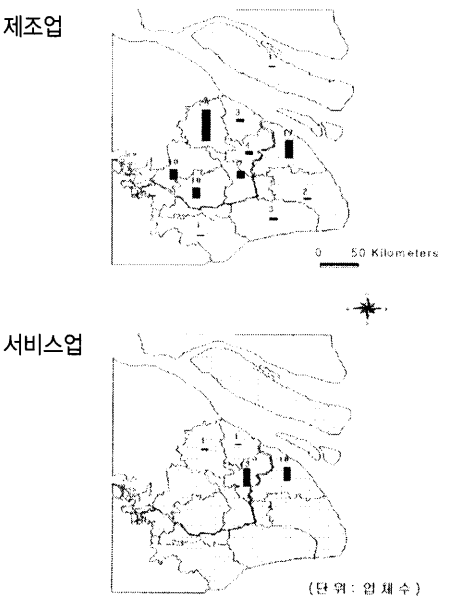
기업의 세계화 전략의 일환으로 해외직접투자가 진행되고 있으며 투자대상국에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현지화가 강조되고 있

〈그림-6〉 상해진출 한국기업의 제조업과 서비스업 입지분포(1992-1996)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데이타베이스

〈그림-7〉 상해진출 한국기업의 제조업과 서비스업 입지분포(1997-2002)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데이타베이스

〈표-7〉 상해현지 조사기업에 대한 원자재, 반제품 또는 부품, 서비스 등의 주 공급지역, 다음 지역 중 공급기업으로부터 50%이상을 공급받는 조사 기업체 수(비율)

	상해시	강소성	그 외 중국지역	모 기업	한국내 기업	그 외 해외지역
원자재	2(13.3) /(15)*	4(36.4) /(11)	3(20.0) /(15)	7(58.3) /(12)	3(27.3) /(11)	1(16.7) /(6)
반제품 / 부품	6(42.9) /(14)	7(58.3) /(12)	2(20.0) /(10)	5(62.5) /(8)	1(25.0) /(4)	- /(1)
서비스	4(57.1) /(7)	1(33.3) /(3)	1(20.0) /(5)	- /(4)	1(33.3) /(3)	- /(2)

주 : ( )*안은 총 응답기업체 수
자료 : 2차 설문조사 결과

어 세계화와 현지화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투자대상국의 경제가 세계화되고 있다는 것은 지역 내에서 국제적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해외투자기업이 그 지역에서 현지화를 추진하는 것은 국제적 네트워크에 자연스럽게 통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역 내 다른 외국투자기업과 중국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국지적 네트워크를 통해 해외기업과의 생산연계, 기술 및 정보의 교류, 공동연구 등의 국제적 네트워크를 강화해 갈 수 있는 것이다.

(1) 생산활동의 현지화와 기업간 연계

원자재와 반제품 및 부품, 서비스의 주 공급지역을 중국지역과 해외지역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중국지역이 해외지역보다 많지만 원자재의 50%이상을 공급받는 비율을 보면 해외지역이 더 많았다.

해외지역 중에서는 모기업으로부터 공급받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 외 해외지역으로부터 공급받는 경우는 적어 대부분 모기업과의 연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중국지역 내에서는 상해시가 높게 나타나지만 50%이상을 공급받는 지역의 비중은 강소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반제품 및 부품의 주 공급지역의 경우에도 중국지역이 모기업이나 해외지역에 비해 많았으나 50%이상을 공급받는 비율을 보면 모기업이 가장 높았다. 중국지역에서는 강소성과 상해에서 공급받는 경우가 각각 58.3%, 42.9%로 높아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에서 부품을 공급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비스의 주 공급지역은 중국지역이 모기업이나 해외지역에 비해 많았으며 50%이상을 공급받는다는 응답기업 중 57.1%가 상해에서 공급받고 있어 서비스의 경우 동일 지역내의 연계가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표-7〉).

〈표-8〉의 생산된 제품이나 서비스를 주로 판매하는 고객기업을 지역적으로 살펴보면, 제품의 경우 중국 내 판매와 중국 외 해외지역으로 50%이상을 판매하는 비율이 각각 25.6%와 25.0%로 비슷하게 나타난다. 중국지역 중에서는 상해시와 강소성을 제외한 그 외 중국지역이 53.3%로 가장 높았고 해외지역 중에서는 한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의 비율이 좀 더 높았다. 서비스의 경우에는 중국지역으로의 판매가 높게 나타나 공급기업과의 관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서비스부분의 지역 내 연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상해 현지법인의 공급기업과 고객기업과의 연계패턴은 대중투자 초기 발해만 지역에 진출한 기업을 사례로 한 이 전의 연구들과 비교하여 보면 다른 특성을 보여 준다. 1994년 발해만 지역(산동성, 북경시, 천진시)에 진출한 85개 제조업체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한

〈표-8〉 상해현지 조사기업이 제조업자, 도소매업자 등에게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주요 판매지역
다음 지역중 고객기업에게 50%이상을 판매하는 조사 기업체수(비율)

	상해시	강소성	그 외 중국지역	모 기업	한국내 기업	그 외 해외지역
제 품	3(20.0) /(15)*	- /(11)	**8(53.3) /(15)**	3(21.4) /(14)	2(28.6) /(7)	3(27.3) /(11)
	중국 내 지역 전체 11 (25.6)			중국 외 지역 전체 8 (25.0)		
서비스	1(20.0) / (5)	- / (3)	**3(75.0) /(4)**	- /(1)	- /(1)	- /(1)

주 : ( )*안은 총응답기업체수
자료 : 2차 설문조사 결과

국기업들은 주요 원자재를 한국본사로부터 공급받고 있는 반면(70.6%), 중국기업으로부터 원자재를 공급받는 경우는 18.7%로 낮게 나타났다. 생산된 제품의 주요 판매지역도 미국(32.0%)과 한국(24.0%), 그리고 일본(20.0%) 등 해외지역의 비율이 높은 반면 중국 내에서 판매되는 비율은 12.0%에 불과했다. 이러한 결과는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이 중국을 저임금을 이용한 한국시장으로의 역수출 혹은 제3국으로의 우회수출을 위한 전진기지로 활용할 뿐 판매대상으로서의 중국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극히 낮았음을 나타낸다(이장노 · 박광서,1995). 상해진출 한국기업의 경우에도 모기업으로부터 원자재와 반제품 또는 부품을 공급받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지만 중국 내 지역에서 공급받는 비율도 이전의 연구들과 비교하면 높음을 알 수 있다. 제품과 서비스의 판매에서도 중국 내 판매가 해외수출과 비슷하게 나타나 중국진출 초기에 비해 지역 내 연계가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경쟁적인 세계경제 속에서 기업간 협력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것은 복잡성과 불안정성을 극복하고 기업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거래활동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정보가 제공되고 상호협력을 꾀할 경우 혁신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박삼옥,1998). 따라서 상해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이 국내기업을 포함한 해외지역과 중국 내 타기업들[3] 과 어떠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표-9〉, 〈표-10〉).

〈표-9〉의 공급기업과의 협력관계를 지역적으로 보면 대부분의 항목에서 중국 내에 있는 기업보다는 모기업과 협력관계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표-9〉 공급기업과의 협력관계 단위: 업체수

	①인력훈련	②인력공동이용	③공동제품개발	④공동공정개발	⑤공동R&D	⑥장비공동이용	⑦금융협력	⑧공동마케팅	⑨기술지원
상해시	5	2	2	2	2	3	1	4	4
강소성	-	1	2	1	2	1	-	1	2
그 외 중국지역	1	1	4	1	2	-	-	3	3
모기업	6	5	8	6	6	2	5	8	11
한국 내 기업	-	-	3	-	1	-	1	-	-
그 외 해외지역	-	-	-	-	-	-	-	-	-
합 계	12	9	19	10	13	6	7	16	20

주 : 복수응답임.
자료 : 2차 설문조사 결과

알 수 있다. 특히 본사와 기술지원과 관련하여 협력관계가 이루어진다고 답한 기업이 가장 많았고 공동 제품개발이나 공동마케팅에서 협력관계가 주로 이루어진다고 답하였다. 중국 내에 있는 기업과의 협력관계를 보면 상해시에 있는 기업과 모든 항목에서 고르게 협력관계가 이루어진다고 응답한 기업이 많았으며, 인력훈련과 공동마케팅, 기술지원과 관련하여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중국지역 내의 타 기업과의 협력관계는 주로 한국투자기업이나 중국기업과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지역 내 다른 외국투자기업과의 협력관계는 낮게 나타났다.

고객기업과의 협력관계에서는 모기업의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대신에 중국에 있는 기업과의 협력관계가 강하게 나타났으며 특히 상해시에 있는 기업과 공동마케팅(46.7%)과 기술지원(36.4%)의 협력이 두드러졌다. 대부분의 경우 한국기업보다는 중국기업과의 협력이 77.2%로 높았으며 공급기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역 내 다른 외국투자기업과의 협력관계는 5.3%로 저조하게 나타났다(〈표-10〉).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공급기업과의 협력관계에서는 모기업과의 협력이 높게 나타났으나 고객기업과의 협력관계에서는 중국지역에 있는 기업과의 협력이 강하게 나타났다. 중국지역 내에서는 상해시가 인근의 강소성이나 그 외 중국지역보다 협력관계가 높았으며 한국투자기업보다는 중국기업과 주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주요 협력항목으로는 공동마케팅이 가장 많았으며 기술지원과 공동 제품개발, 인력훈련 등이었다. 특히 중국지역의 고객기업과의 협력관계가 높게 나타난 것은 시장 추구형 투자동기와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지역 내 다른 외국투자기업과의 협력관계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는데 이는 지역으로부터의 기술획득의 한계를 드러내게 된다. 국지적 네트워크를 강화함으로서 국제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다고 볼 때, 지역 내 다른 외국투자기업과의 연계와 협력네트워크를 강화하여 그 기

〈표-10〉 고객기업과의 협력관계 단위: 업체수

	①인력훈련	②인력공동이용	③공동제품개발	④공동공정개발	⑤공동R&D	⑥장비공동이용	⑦금융협력	⑧공동마케팅	⑨기술지원
상해시	3	1	3	2	3	3	3	7	4
강소성	2	-	-	-	1	1	1	3	3
그 외 중국지역	2	-	2	-	1	1	2	5	4
모기업	1	1	2	-	1	-	-	-	3
한국 내 기업	-	-	2	-	-	-	1	-	-
그 외 해외지역	-	-	2	-	-	-	-	-	-
합 계	8	2	11	2	6	5	6	15	14

주 : 복수응답임.
자료 : 2차 설문조사 결과

3) 협력기업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중국지역을 상해시와 강소성, 그외 중국지역으로 분류하여 각 지역내에 있는 동일업종 한국투자기업, 동일업종 중국기업, 그리고 동일업종 다른 외국 투자기업, 비동일업종 기업과의 협력관계를 조사하였다. 그러나 답변을 준 기업의 수가 너무 적은 관계로 분석에 참고하는 정도로 하였다

업을 매개로 해외지역에 있는 모기업이나 다른 기업들과 국제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도 앞으로 한국투자기업의 현지화의 성과를 높이는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된다. 이를 위해선 공급기업과 고객기업 뿐만 아니라 경쟁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박삼옥 외, 1998).

(2) 연구개발의 현지화

본사와 현지법인의 연구개발활동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본사의 경우 79.5%가 있다고 답한 반면, 현지기업의 경우 36.4%만 연구개발활동을 한다고 답해 아직까지 현지법인에서의 연구개발활동은 모기업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었다.

투자지분별로 연구개발활동을 살펴보면, 단독투자인 경우 연구개발활동을 하지 않는 기업이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다(〈표-11〉). 이병민(2001)에 의하면, 100% 단독투자를 행하는 외국기업일수록 연구개발활동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이며 의사결정과정에서도 모기업의 의사가 더 많이 반영된다. 김희석(2003)의 연구에서도 이 점이 지지되었는데, 단독투자의 경우 본사의 통제력이 강하였고 그럴수록 연구개발의 현지화 수준은 낮아진다는 것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 부문에서 연구개발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기업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서비스업의 연구개발활동이 낮게 나타나는 것은 서비스업의 응답기업의 대부분(66.7%)이 2000년 이후에 진출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현지진출 초기의 기업일수록 투자대상국내 연구개발활동의 수준이 낮다는 것인데, 이는 서비스업뿐만 아니라 제조업에서도 연구개발활동이 내포하는 근본적인 불확실성과 장기투자라는 속성을 감안한다면 현지경험이 적은 진출초기보다는 현지경험이 누적되고 경쟁기반을 갖춘 후에 과감한 연구개발투자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김희석,2003).

기술이전과 관련해서도 모기업으로부터 상해현지법인으로 기술이전이 이루어진다고 응답한 경우가 47.7%로 나타난 반면 상해현지에서 모기업으로 기술이 이전되는 경우는 한 건도 없어 대부분 모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이 주요하게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상해현지로 기술이 이전되고 있다고 판단돼 연구개발활동의 현지화 수준은 아직까지는 낮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상해현지법인의 연구개발활동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조금씩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어 향후 상해 현지법인의 연구개발활동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표-11〉 상해현지법인의 투자지분별 연구개발부서 현황 단위 : 업체수, (%)

	있 다	없 다	합 계
10%미만	-	2	2
10%이상 50%미만	1(25.0)	3(75.0)	4(100.0)
50%	-	3(100.0)	3(100.0)
50%초과 100%미만	1(33.3)	2(66.7)	3(100.0)
100%	14(42.4)	19(57.6)	33(100.0)
합 계	16(37.2)	27(62.8)	43(100.0)

자료 : 설문조사 결과

(3) 조직과 고용의 현지화

상해 현지법인의 주요의사결정권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주요예산집행, 연구개발비결정, 투자확대 및 축소여부는 모기업 본사에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반면, 임금협상, 노사관리, 중국정부와 주요 안건협상, 미숙련직 채용은 상해 현지법인에 권한이 많음을 알 수 있다(〈표-12〉).

몇 가지 예민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상당 부분 현지의 사정에 밝은 자회사에 일임함으로서 시장 추구형 투자동기에 부합된다고 볼 수 있으나, 내용면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주요 안건에 대해서는 모기업에 상당 부분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인력자원의 현지화와 관련하여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고급인력의 채용부분은 모기업과 현지기업에게 비슷한 비율을 보임으로서, 이병민(2001)의 연구에서 한국에 진출한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경우 고급인력 채용권한이 모기업에는 11.3%가 있으며 68.7%가 한국내 자회사에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특히 투자의 확대와 축소 여부에 관련한 사항은 82.9%가 모기업에 집중되어 있어 투자관련사항이 모기업(38.7%)과 한국내 자회사(36.0%)에 비슷한 비율을 보인 한국에 진출한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경우와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인력자원의 현지화와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현지고용의 수적인 증가가 아니라 직종별 분포를 살펴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본사에서 파견된 직원의 직종별 분포를 보면 98.7%가 관리직과 숙련기술직, 연구개발인력에 집중되어 있고 미숙련 생산직에는 단 한 명의 고용도 없다. 44개의 조사기업 모두 관리직에 본사에서 파견된 직원이 자리하고 있었는데 1명인 경우 34.1%, 2~3명인 경우가 34.1%로 가장 많았고 10명이 넘는 기업도 3곳(6.9%)이 있었다. 중국 현지 고용인력으로는 한족과 중국교포인 조선족이 있는데 한족의 경우 숙련기술직(35.5%)과 미숙련 생산직(30.8%)에 가장 많이 고용되었고 조선족의 경우는 관리직(62.8%)의 비율이 높았고 미숙련 생산직에도 24.8%의 고용을 나타내었다. 이는 상해진출동기 중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하는 것이 투자의 한 목적임을 감안하면 당연한 결과이다. 한족과 조선족의 관리직 채용현황을 보면 이들을 관리직에 채용하지 않은 기업도 10여 곳이 넘고 있지만 상당수의 인력이 관리직

〈표-12〉 주요 사안별 의사결정권 단위 : 업체수, (%)

사안	모 기업	상해현지법인	한국측기업*	중국측 기업**	합 계
주요예산집행	**26(60.5)**	12(27.9)	4(9.3)	1(2.3)	43(100.0)
임금협상	10(24.4)	**26(63.4)**	4(9.8)	1(2.4)	41(100.0)
노사관리	4(9.8)	**32(78.0)**	4(9.8)	1(2.4)	41(100.0)
정부와협상	7(17.5)	**28(70.0)**	4(10.0)	1(2.5)	40(100.0)
고급인력 채용	17(41.5)	20(48.8)	3(7.3)	1(2.4)	41(100.0)
미숙련직 채용	2(5.1)	32(82.0)	4(10.3)	1(2.6)	39(100.0)
연구개발비결정	**24(68.5)**	9(25.7)	1(2.9)	1(2.9)	35(100.0)
투자확대 · 축소	**34(82.9)**	4(9.8)	2(4.9)	1(2.4)	41(100.0)

주 : * 합작투자기업인 경우 의사결정권이 한국 측 기업에만 있는 경우
** 합작투자기업인 경우 의사결정권이 중국 측 기업에만 있는 경우
자료 : 설문조사 결과

에 고용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조선족의 경우 관리직의 비율이 높은 것은 의사소통이 원활하다는 점이 크게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한족의 관리직 고용도 수적으로 가장 많으나 이는 생산관리직이 대부분일 가능성이 크다.

(4) 현지사회에의 융화노력

상해진출 한국기업의 현지사회에의 기여 현황을 보면 1997년 8건(7.5%)이었던 것이 2002년에는 67건(62.6%)으로 늘어났으며, 참여기업수도 1999년 4개(10.0%)의 기업에서 2002년에는 27개 기업(67.5%)로 늘어났다. 항목별로는 기증이 전체의 58%로 가장 많았고 행사후원(18.7)과 공익행사(11.2)의 순으로 나타났다(〈표-13〉).

지역사회에의 이러한 기부나 융화를 위한 노력들이 현지에서 한국투자기업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기업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기업내의 직원들간의 융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해외자회사의 직원들의 조직충성도가 현저하게 낮다면 현지화과정은 상당히 오랜 시일이 요구될 것(신만수 · 문형구,1997)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직원들과 지역사회 모두를 위한 기부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는 전략이 될 것이다.

그러나 아직 장학금 지급이나 복지사업, 강좌 등에는 참여가 낮게 나타나 내용면에서는 초기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설문대상기업의 70% 이상이 2000년 이후에 상해에 진출하여 아직 기부에 여유가 없다고 답한 것과 향후 기부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기업이 여러 곳 있는 점을 고려하면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기부나 기증을 통한 지역사회에의 융화노력들이 지방정부의 요청에 따라 소극적인 자세로 대처하기보다는 보다 자발적이며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일시적인 행사보다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효과를 볼 수 있는 장기적인 전략이라는 점이다.

(5) 지방정부와의 관계

중국 현지에서의 기업활동은 대부분 지방정부의 관할과 영향하에 있으므로 지방정부와의 교류 및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기업의 현지화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백권호 외, 2002). 이

〈표-13〉 지역사회에의 기여 현황 단위 : 건, (%)

구 분	1999	2000	2001	2002	합 계
공익행사	1(12.5)/(1)*	-	2(8.0)/(1)	9(13.4)/(7)	12(11.2)/(9)
기 증	4(50.0)/(1)	5(71.4)/(1)	18(72.0)/(3)	35(52.2)/(6)	62(58.0)/(11)
장학금	1(12.5)/(1)	-	-	3(4.5)/(2)	4(3.7)/(3)
복지사업	-	-	1(4.0)/(1)	4(6.0)/(2)	5(4.7)/(3)
강 좌	-	-	1(4.0)/(1)	3(4.5)/(1)	4(3.7)/(2)
행사후원	2(25.0)/(1)	2(28.6)/(1)	3(12.0)/(1)	13(19.4)/(9)	20(18.7)/(12)
기 타	-	-	-	-	-
합 계	8(100.0)/(4)	7(100.0)/(2)	25(100.0)/(7)	67(100.0)/27	107(100.0)/(40)

주 : ( )* 은 응답기업수
자료 : 2차 설문조사 결과(복수응답임)

〈표-14〉 상해정부와의 협력관계 단위: 업체수, (%)

1순위		2순위		3순위	
세제혜택	24(80.0)	금융	12(42.9)	금융	7(29.1)
부동산취득	2(6.7)	부동산취득	5(17.9)	부동산취득	5(20.8)
마케팅	1(3.3)	세제혜택	4(14.3)	마케팅	5(20.8)
기타*	3(10.0)	박람회	3(10.7)	직업훈련	2(8.3)
		마케팅	2(7.1)	세제혜택	1(4.2)
		직업훈련	2(7.1)	기타*	4(16.8)
	30(100.0)		28(100.0)		24(100.0)

주 : * 기타 항목에는 법률과 제도(3개 서비스업체), 각종 인허가(2개 서비스업체), 공장인력관리(1개 제조업체) 등이 있음.
자료 : 2차 설문조사 결과

는 중국의 경제개혁의 결과 지방정부도 임대, 은행 대출, 원자재와 전력 등과 같은 주요 자원 공급을 관리하게 되면서 권한이 전보다 더 많아졌기 때문이다(Shi,2001).

실제 한국기업이 정부의 역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가 현지화의 첫 단추를 채우는 출발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되어 정부의 중요성에 대해 물었다. 그 결과 전체 응답기업의 87.5%가 상해정부의 역할이 중앙정부보다 중요하다고 답하였다.

지방정부와의 협력관계에 관한 질문에서는 세제혜택을 1순위로 꼽았으며, 1 · 2 · 3순위를 합하면 금융협력이 23.1%, 부동산 취득이 14.6%로 나타났다(〈표-14〉). 투자동기와 입지결정요인과의 관계에서도 정부의 역할은 중요한 입지요인이 된다고 보는데(Dunning,1998; Cheng & Kwan,2000; Shi,2001), 특히 수출 지향적인 FDI인 경우에는 정부의 세금우대조치를 더 중요시하고 시장 추구형 FDI인 경우에는 시장접근과 내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들에 더 비중을 둔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Cheng & Kwan,2000)지만, 보다 객관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조사과정에서 각 지방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들이 시장 추구형 한국투자기업의 현지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일부 확인되었다. 서비스업 관련 기업에서 제시된 문제들 중 업무와 관련된 법률과 제도가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아 지역마다 법적 해석이 달라져 어려움이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한 지방정부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간 원활하지 못한 운영메커니즘은 상당수의 외국투자기업들이 자신의 사업이익을 향상시키고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영향력 있는 개인이나 관료, 지역관리 등과 개인적이고 비공식적인 관계(關係guanxi)에 의존하게 만든다(최홍석 · 안종석,1999. 백권호 외,2002). 그러나 이러한 비공식적 관계의 의존은 자칫 현지화를 왜곡시킬 수 있다. 실제 중국투자 사례에서 관시에만 의존하여 일을 처리하려다가 오히려 낭패를 보는 경우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4.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의 분석내용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중국진출 초기 동북연안지역으로 집중되었던 우리 나라 대중투자의 지리적 패턴이 최근 화중지역으로 분산화되고 있는 것은 투자동기와 진출업종의 변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시장추구형 투자가 증가하고 서비스업의 진출이 증가하면서 중국 내 투자환경의 지역적 변화에 따른 입지결정요인이 한국기업의 대중투자의 지리적 패턴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상해시를 사례로 업종별 투자동기와 입지특성의 변화를 보면,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 시장추구형 투자동기가 우세하였으나 제조업의 경우에는 생산효율성 추구형 투자동기도 시장 추구형 투자동기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상해의 투자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앞으로 생산효율성 추구형 투자의 경우 입지지역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사대상 기업 중 상해주변지역으로 이전을 희망하는 제조업체의 주요 이유가 비용절감과 노동력 이용으로 나타난 점을 미루어 볼 때 상해의 투자환경 변화가 생산효율성 추구형 제조업의 입지 변화에 영향을 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는 아직도 한국기업의 대중투자가 기업특유의 우위요소 보다는 입지특유의 우위요소에 의존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중국 내 입지결정요인의 지역적 차이가 앞으로도 한국기업의 대중투자의 입지선정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칠 것임을 나타낸다.

셋째, 상해진출 한국기업의 현지화와 관련하여, 현지법인의 연구개발활동은 아직 저조하였지만 경영활동과 관련한 항목에서는 현지화의 정도가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그 동안 대중투자기업의 현지화에 대한 대부분의 국내 연구들이 경영성과 측면에서 강조되면서 이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이 높아진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지화를 측정하는 기준을 무엇으로 정했느냐에 따라 결과는 전혀 달라질 수 있어 한 두 개의 기준으로 현지화 정도를 판단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이는 현지화가 해외투자기업이 지역환경에 적응하고 지역경제에 뿌리를 내리고 통합되는 과정에서 국제적 네트워크에 의해서도 강화될 수 있음을 간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적인 관문도시나 국경지역의 산업은 국제적인 네트워크가 강하게 형성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지역에 진출한 해외투자기업이 현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 내 뿌리내린 국제적 네트워크에 자연스럽게 통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점을 염두에 두고 기업간 협력관계를 조사하였다. 답변을 준 기업의 수가 적어 정확한 분석에는 한계가 있으나 대중투자의 현지화와 관련한 발전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할 수는 있다고 본다. 우선 공급기업과의 협력관계에서는 모기업과의 협력이 높게 나타났으나 고객기업과의 협력관계에서는 중국지역에 있는 기업과의 협력이 더 높게 나타났다. 중국지역 내에서는 강소성이나 그 외 중국지역보다 상해시에 있는 기업과의 협력관계가 높아 국지적 협력관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주요 협력항목으로는 공급기업과는 기술지원과 공동제품개발, 공동마케팅이 가장 많았으며 고객기업과도 공동마케팅과 기술지원과 관련하여 협력이 이루어졌다. 협력기업의 특성을 보면 중국지역에서는 중국기업과의 협력이 해외지역에서는 모기업과의 협력관계가 높게 나타났고, 두 지역 모두 다른 외국투자기업과의 협력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역 내 중국기업과의 협력은 국제적인 협력네트워크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협력관계에 있는 중국기업이 지역 내 다른 중국기업이나 외국투자기업과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지역 내 국지적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내외의 다른 기업과도 생산연계, 기술 및 정보의 교류, 공동연구 등의 국제적 네트워크를 강화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선진 다국적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는 상해시는 국지적 네트워크를 통해 국제적 네트워크를 강화해 갈 수 있는 곳이라는 점에서 우리 기업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앞으로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것인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중국의 시장변화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어야 하고 우리나라 기업의 대중투자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여 중국의 시장변화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중투자의 특성들이 변화하고 현지화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현지화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자 했다. 기존의 연구들이 단일 기준을 적용하여 경영성과에만 초점을 둔 결과 보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 부각되어 현지화에 대한 인식이 왜곡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기존의 연구에서 제시된 기준들을 종합하여 현지화 정도를 분석하였으며 기업간 협력네트워크가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협력관계에 대한 조사기업수가 적어 깊이 있는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분석대상이나 조사방법에 따라 현지화의 기준이나 분석방법이 다양하게 변할 수 있고 그에 따라 현지화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것은 본 연구의 한계이다. 앞으로 해외직접투자의 현지화에 대한 연구가 축적되면서 보다 객관적인 연구방법과 깊이 있는 분석틀이 제시되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한국수출입은행 데이터베이스, 1988-2002.9

강룡원, 1988, 「다국적기업의 해외투자 입지선정과 투자순위 연구」, 서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종근, 1998, 「외환위기 이후 한국해외현지법인의 구조조정 실태와 애로사항: 중국」,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희석 ,2003, 「다국적기업의 해외현지연구개발:한국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IR패러다임의 적용」,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남기범, 1987, 「한국 해외직접투자 제조기업의 분포 및 입지선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박삼옥,1998, '한국기업의 대중투자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월간국토』, 통권196호, 국토개발연구원

박삼옥, 1999, 『현대경제지리학』, 도서출판 아르케

박삼옥, 2002, '네트워크세계의 산업:산업의 세계화와 국지화', 『대한지리학회지』, 제37권 제2호.

박삼옥,주성재,남기범,황주성 편역,1998,『경제구조조정과 산업공간의 변화』,한울

박상수, 1997,「한국기업의 대중투자 실태 및 경영성과 분석」,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백권호 외, 2002, 「중국 진출 한국기업의 경영 현지화에 관한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만수 · 문형구, 1997, '한국투자기업의 현지종업원 조직몰입도 및 그의 결정요인-인도네시아 및 중국을 중심으로', 『국제경영연구』, 제8권.

이병민, 2001, 「한국내 외국인직접투자업체 기업네트워크의 공간적 특성-사업서비스업체를 사례로」, 서울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장로 · 박광서, 1995, '대중국투자기업의 경영성과 제고를 위한 실태조사연구', 『국제경영연구』, 제6권.

주성재, 1986, 「한국에 있는 외국인투자 제조기업의 입지패턴과 그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석사학위논문

차미숙, 2002,「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유형별 입지특성과

지역연계에 관한 연구」,국토연구원

최홍석 · 안종석, 1999, '중국 해외직접투자 유치의 발전추이',「경제학논집」, 제8권2호

Cheng,L.K. & Kwan,Y.K., 2000, 'What are the determinants of the location of foreigndirect investment? The Chinese experience,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51,pp.379-400.

Dunning, J.H., 1998, ' Location and the multinationalenterprises: a neglected factor?, Journal of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vol.29, no.1, pp.45-66.

Han, C. M., 2002, 'Korea' s direct Investments in China: Technology, experience, and ownership factors in performance' , Asia Pacific Journal of Management, 19(1).

Han, C. M. & Brewer, T. L., 1987, 'Foreign Direct Investments by Korean Firms: An Analysis with FDI Theories' , Asia-Pacific Journal of Management, 4(2), pp.90-102.

Kimura, F., 1998, 'Japanese multinationals and regional integration in Asia' , in Kiiciro Fukasaku, Fukunari Kimura, and Shujiro Urata, eds., Asia & Europe: Beyond Competing Regionalism, Brighton:Sussex Academic Press, 113-133.

Kumar, K. & Kim, K. Y., 1984, ' The Korean Manufacturing Multinationals' ,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springsummer, pp.45-62.

Shatz,H.J & Venables, A.J., 2000, 'The Geography of International Investment' ,The Oxford Handbook of Economic Geography, ch.7.

Shi,Y., 2001, 'Technological capabilities andinternational production strategy of firms: The case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China' , Journal of World Business, 36(2),pp.184-204.

Sun,Q.,Tong,W. & Yu,Q., 2002, 'Determinent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across China' , Journal of International Money and Finance, 21, pp.79-113.

Walsh,S.T. et al., 1999, 'Direct ForeignManufacturing Investment Decisions For China' , Engineering Management Journal, 11(4)

Wei, S.J., 1995a, 'The Open Door Policy and China' s Rapid Growth: Evidence from City-level Data' , in Ito, Takatoshi, Krueger,Anne(eds.), Growth Theories in Light of the East Asian Experienc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Wei, S.J., 1995b, 'Attracting foreign direct investment: has China reached itspotential?' , China Economic Review, 6, pp.187-199.

Yeung,H.W., 1994, 'hird World MultinationalsRevisited: A Research Critique and Future Agenda' , Third World Quarterly,15(2), pp.297-317.

Yeung,H.W., 1998, 'ransnational Economic Synergy and Business Networks: The Case of Two-way Investment Between Malaysiaand Singapore' ,Regional Studies, vol.32.8, pp.687-706.